

## 광주 기초의회 'MZ 세대' 몰려온다

공직선거법 하향, 민주당의 청년 선거구 확보 등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MZ세대들의 정치 입문이 붐몰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회에는 2030세대들이 중앙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경험 부족 등으로 청년 정치인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본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세대의 정치 입문에 대한 지역 분위기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정치 참여하는 청년들 <상> 젊은 패러다임 제시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들의 정치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MZ 세대들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MZ 세대들의 대선 캠프 활동과 민주당의 청년 선거구 지정, 초선 정치인 공천 등이 '청년정치'의 길을 닦은 것이다.

2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안이 통과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곧바로 적용된다.

실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민주당 청년 대변인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한 것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사례는 기성세대와의 정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다.

이처럼 청년들의 정치권 러시 열풍 뒷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존의 정치권은 데스크 정치, 관보 정치 등으로 청년들이 입문하기 어려웠지만, 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디지털

### 공직선거법 정치 기회 확대 대선 캠프 등 2030세대 활발 청년선거구 공천제 큰 도움 초선 지역구 경쟁 치열할 듯 일자리 등 목소리 대변 기대

당원 가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치권 문턱이 낮아진 게 주요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당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10명의 공동선대위원

장을 발탁했다. 이 중 송갑석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은 청년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같은 달 민주당 지방자치 아카데미에는 청년 21명이 교육에 참가, 지난 2019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청년층의 정치 인식 제고와 함께 당의 제도적 개선 등으로 지방선거까지 청년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청년이 활동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초선 정치인 선거구 공천제도도 2030세대의 정치 입문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중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초의원엔 20곳의 선거구마다 가번호에 청년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선거구 공천제도를 예고했다.

▶2면으로 이어짐 /민찬기 기자

## "설 민심 잡아라" 광주·전남 '구애'

민주당, 26일 광주서 중앙선대위 개최  
국힘, 이준석 25~26일 호남 방문

대선정국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설 연휴 호남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쟁탈전이 펼쳐진 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치앞을 예상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호남에 출동해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양당 모두 향후 호남민심의 추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설연휴를 맞아 직접 공략에 나선 것이다.

2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가 오는 26일 이례적으로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세력산에 나선다. 호남민심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2030에 이어 호남이 정치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모지 호남 방문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호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손편지를 대규모로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윤 후보가 설 연휴 예정된 TV토론회가 끝난 뒤 호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호남 방문을 통해 호남 공약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선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설 명절 전후의 호남민심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전 대선에 비해 결집도가 약한 호남민심을 끌어 올리는 것이 당면 최대 과제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2년이 된 20일 광주·전남지역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하남3지구 제2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전남 500명대 돌파... 오미크론 최고조

광주·전남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광주 359

명, 전남 160명 등 모두 519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일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 수치다. 광주지역만 봐도 처음으로 300명대를 돌파했다.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에서는 확산세가 심각한 목포에서 66명이 추가됐다. ▲무안 22명 ▲나주 21명 ▲순천 15명 ▲여수·영암 7명 ▲담양·진도 각 4명 ▲광양·고흥 각 3명 ▲화순 2명 ▲장흥·강진·보성·해남·영광·구례 각 1명 등이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수색 1년 걸릴지도"...붕괴사고 현장 '참담' ▶7면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 함께해요 청년창업!

###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 청년도약! 예비창업가에서 성공강소기업으로

# 청년창업 종합 지원 시스템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